



## 교회와 사역

### 느린 교회를 꿈꾸다 -교회를 일구는 세 가지 원칙 (C.크리스토퍼 스미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을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 뭘 뜻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돕는 열쇠이다. 하지만 이 가르침을 오늘 실제의 삶에서 적용할 길을 찾으면 쉽지만은 않다.

맹렬한 서구 개인주의의 산물인 우리는 산상수훈을 개인을 위한 안내서로 읽어보려고 하지만 이내 실패하고 만다. 산상수훈에 기록된 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주신 삶의 방식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정작 조각난 일상의 삶에서는 그 말씀을 따라 살 희망을 잃고 만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같이 결코 만만하지 않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직면하게 될 때는 그것을 실제 삶에서 실천할 수 없는 이유를 합리화하려고까지 한다.

### 산상수훈, 성숙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그림

그러나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단순히 우리 개개인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성숙해지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그림으로 그려준 것이 산상수훈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시는 구속의 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데 모으는 일도 포함된다. 이 일은 고대 이스라엘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자손에서 시작되었으며 열두 부족을 상징하는 열두 제자로 이뤄진 작은 공동체를 이끄셨던 예수님도 실행하셨다. 오순절 이후 제자들이 세상 곳곳으로 보내졌을 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하나님 백성의 일부가 되라는 초청을 받았으며 그때부터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출신 민족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공동체를 건설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우리 자신이나 남을 판단하는 새로운 규칙이 될 수 없다. 그와 반대로 산상수훈은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보여주는 비전이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형제자매들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며 주류 문화와 다른 방법으로 더불어 살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예수님이 거듭해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수사적 표현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길과 세상의 길이 어떤 대조를 보이는지 그려내고 계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이미지도 마찬가지다.

산상수훈의 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뤄진 특정한 공동체에서 시작되는 느린 변화에 뿌리를 두고 밖으로 퍼져 나간다. 아마 예수님이 '남을 판단하지 마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뜻이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다(마 7:1-5).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찾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 살면서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 아닐까? 이웃이나 세상을 판단하거나 그들을 바로잡으려 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웃들뿐 아니라 심지어 적(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런 부르심을 증명하는 최고의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변화의 힘을 지닌 예수님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각자의 교회 안에서 서로가 산상수훈의 지혜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예수님을 구현해 낼 수 있을까?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역 / 행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예덴의 축복과 천국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천국의 행복을 이웃과 나눕시다.

1.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이 사랑받으며 또한 지혜롭게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2. 금주는 만남과 나눔주간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말씀과 기도로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3. 팀사역 세미나가 12주과정으로 계속됩니다. (인도: 김윤경 사모)
4. WOW 모임이 토요일 오전 11:00에 있습니다.
5. 다음 주일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6. 선교사 목사 부부 초청 선교/찬양집회와 여성 회복세미나(5/17-19) 준비를 위해 협력해 주십시오.
7. 유초등부 교육전도사/교사 청빙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8. 교우와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우 동정 : 김훈태, 김신실 (자녀 방문, 해외 여행 중)

♥생일 축하♥ 구민(5/8) 구민우(5/16) Elise(5/17) 최내권(5/20)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으로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축복된 교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 기도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건강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훈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치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 예배섬김이

주일예배기도	4/28	5/5	5/12	5/19
	고순제전도사	오정은집사	최내권집사	정훈렬목사
금요일예배기도	5/3	5/10	5/17	5/24
	구민집사	구은강집사	김훈태집사	박진성집사
주일헌금위원	4/28	5/5	5/12	5/19
	박진성집사/최선운집사	유덕하집사/구은강집사		
주일안내위원	4월	5월		
	최내권집사	구민집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 요한복음 21:15-19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나왔던 제자들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호숫가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불을 피우시고, 아침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순종한 베드로와 제자들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식사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 반복해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다. 받은 은혜 때문에 사람이거나 세상보다 최우선적으로, 일대일 즉 절대적 관계에서, 삶의 기초가 되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는 질문이다. 예수님은 상처를 치유하시며 사명을 회복시켜주시며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충성할 때보다 불순종할 때가 더 많은 우리를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붙잡고, 승리합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사람입니다. / 누가복음 9:46-48

세상과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 더 많은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역설을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낮추며 낮은 사람을 섬기는 성도가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세진 힘, 쌓인 지식, 늘어난 소유, 모든 자랑 거리를 낮추어야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교만,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오만함 이제는 대접을 받을 만한 위치에 올라왔다는 교만을 버려야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 모든 사람을 위로 올려보며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사람입니다. / 누가복음 9:46-48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인가를 놓고 논쟁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 한 명을 찾아 제자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는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죄가 없고 순수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가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예수께 받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쌓은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음은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런 어린 아이의 눈으로 어른들을 한 번 보십시오. 어른들은 자신보다 훨씬 더 크고 힘도 셉니다. 어린 아이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른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모르는 것을 어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어른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는 어른보다 낮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항상 어른들을 위로 올려다봅니다. 항상 우러러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낮은 자의 모습입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겸손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자신의 자리를 잊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였던 천사가 있었습니다. 타락한 천사, 사탄입니다. 또한 자신의 자리를 잊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높은 곳에 앉겠다고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교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 평생을 두고 근신 하며 멀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고는 우리를 괴롭힙니다. 성도들 사이를 갈라 놓습니다. 교회에 혼란을 가져옵니다. 교만을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을 위로 올려보듯이, 어린아이의 자리로 돌아가서 모든 사람을 위로 올려보면 됩니다. 나보다 남을 높이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십니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네 영혼이 잘 될 때까지 내가 밤사에 잠되고 감격하기를 간구하노라”

#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치유, 회복, 나눔

May 5, 2019

##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2019년 5월 5일

5-18호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만남과 나눔의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내가 영혼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족 기쁨이 나의 부지름을 들었노라  
-시편113:1